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시권
- Bloomberg: 옐런 재무장관, 트럼프의 '강달러 수출 저해' 주장에 반박
- WSJ: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 일정

[미국 금융]
- Bloomberg: 투자자들, 이번 주 미국 영국 일본 금리 발표 촉각
- WSJ: 트럼프, '미 우선주의 정책' 의제에 암호화폐 추가

[미 대선]
- NYT: 해리스 당선되면 아마 '미 자유무역 회의론' 계속될 듯

[미국 생활]
- CNBC: 미 전기 기술자 수요 호황기에 접어든다

[부동산]
- WSJ: 상업용 부동산 압류 급증
- CNBC: 작년 주택 보험료 21% 상승...기후 변화도 원인
- CNN Business: 미국 세입자 절반 이상, 주택 구매 여력 부족 우려

[원유]
- Bloomberg: 브렌트유 6월 이래 첫 80불 미만으로 하락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미국, 코로나 이후 제조업 호황 둔화 조짐
- Bloomberg: 맥도날드, 2020년 이래 첫 매출 감소...고객 수 줄어
- Bloomberg: WSJ: 미국, 코로나 이후 제조업 호황 둔화 조짐
- WSJ: AI를 활용해 구리와 리튬을 찾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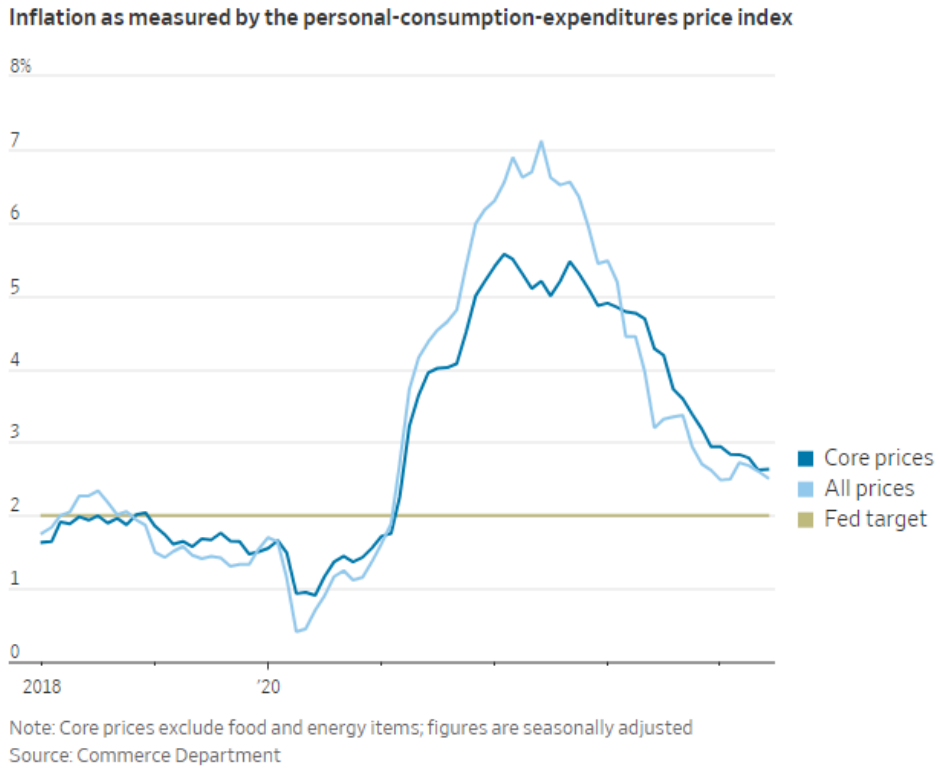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A Fed Rate Cut Is Finally Within View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시권

- 연준은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인플레와 노동 시장의 최근 추세로 인해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해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 즉, 파월 의장은 금리를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늦게 인하하는 리스크 사이에 저울질하는 입장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 파월 의장은 최근에 물가를 2%로 낮추면서 동시에 양호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 한편 6월 근원 물가지수는 2.6%로 작년 동월의 4.3%에서 줄었다.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 총재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WSJ 기사

Bloomberg: Yellen Rebuffs Trump Argument on Dollar Hurting US Manufacturing
옐런 재무장관, 트럼프의 '강달러 수출 저해' 주장에 반박

- 그는 강한 달러가 수출을 제한하고 수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왜 달러가 강세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법안, 즉 인플레 감축법을 통한 인프라와 반도체 및 클린 에너지 확충과 전기차 지원 등이 제조업 확충을 지원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강한 경제에 있으며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이 견조하다. 인플레 감축법과 인프라 지원법 등이 많은 제조업 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강한 미국 경제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WSJ: Fed Decision, Jobs Report: This Week's Big Economic Data and Central-Bank Meetings
이번주 경제 지표 발표 일정

- 화요일: S&P/Case-Shiller 주택 물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6월 일자리 공고와 노동 이직률
- 수요일: 연준의 7월 회의 결과 발표(금리 인하 동결 및 9월 인상 시사 예정), 일본은행 금리 발표(인상 가능성)
- 목요일: S&P Global와 ISM의 제조업 분야 구매 관리자 지수
- 금요일: 7월 연방 정부 일자리 보고서(19만개 추가 예상, 실업률 4.1% 예상)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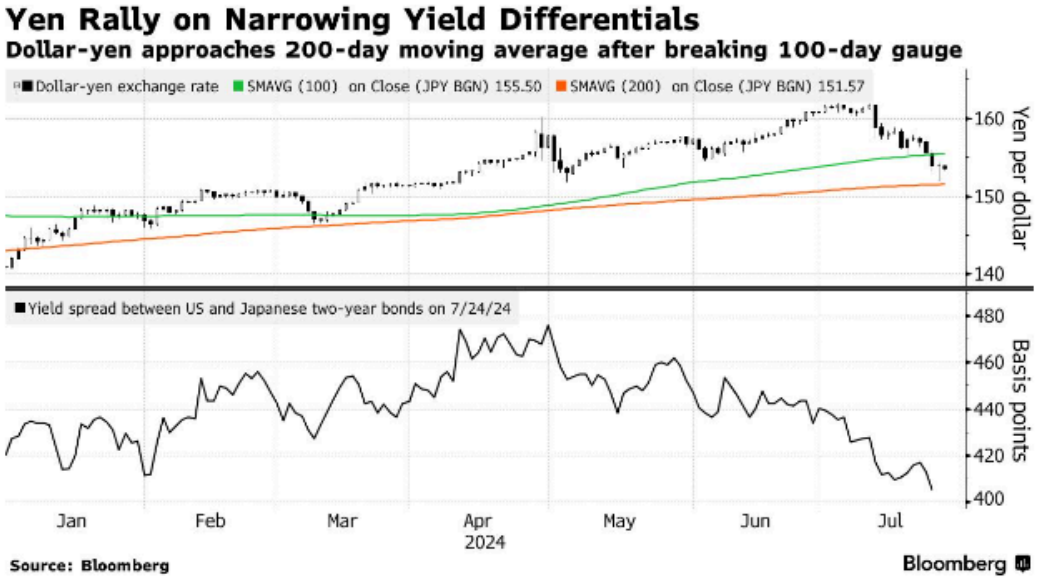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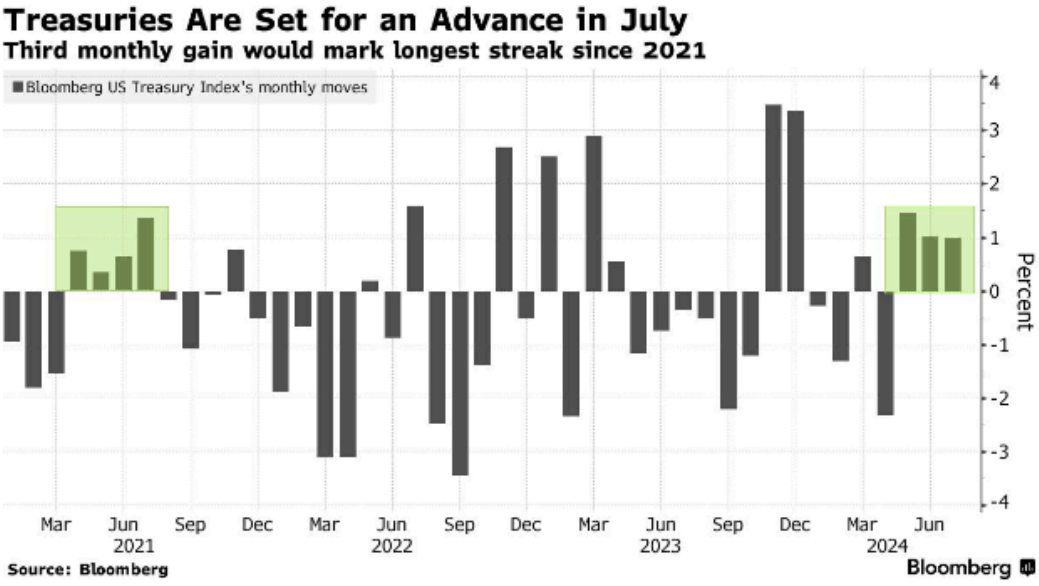
Bloomberg: Traders Fret as 32-Hour Central Bank Spree Hangs Over Market
투자자들, 이번 주 미국 영국 일본 금리 발표 촉각

- 이번 주 수요일에 일본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와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준과 영국은행이 금리를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내릴지 투자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 현재 불확실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화와 파운드화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주에 이들 시장

의 정책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보이고 있다.

- 일본 금리 관련해 옵션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상 베팅을 40% 미만에서 지난주 90%로 올렸다. 연준은 오늘 수요일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9월 첫 금리 하락 관련해서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현재 금리가 5.25%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WSJ: Trump Adds Crypto to His ‘America First’ Agenda
트럼프, ‘미 우선주의 정책’ 의제에 암호화폐 추가

- 트럼프는 지난주 토요일에 비트코인 관련자 2만명이 참석한 내쉬빌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가했다.

- 그는 “암호화폐가 미래를 규정 지을 것으며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채굴되고 제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그는 “재선될 경우 미국 정부가 금을 비축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국가적 비트코인 비축고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미국 정부는 불법 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압수한 16만4천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WSJ 기사

[미 대선]

NYT: With Kamala Harris, U.S. Free Trade Skepticism May Continue
해리스 당선되면 아마 ‘미 자유무역 회의론’ 계속될 듯

- 카멀라 해리스는 지난 1992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지지했던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도 반대했다. 그는 2020년 새로운 수정 NAFTA를 반대하는 연방 상원 10명 중 한 명이었다.
- 이와 관련 해리스에게는 무역 정책이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 그에게는 청정 환경 이슈와 근로자 이슈가 무역 관련 주요 관심사 일 수 있다.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에 반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그것이 당시 캘리포이나 환경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때문이었다.
- 한마디로 그는 무역을 기후 환경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정 제품의 무역을 장려하고 비청정제품의 무역 장벽을 키우는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미국 생활]

CNBC: America’s demand for skilled electricians is entering a boom cycle
미 전기 기술자 수요 호황기에 접어든다

- 미 전기 기술자 채용이 오는 2032년까지 매년 6%씩 성장해, 즉 다른 직업에 비해 2배 성장해 매년 7만3천5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연방 노동통계국은 밝혔다.
- 전기 기술직에 진입하는 인력보다 은퇴하거나 이직하는 이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 조직의 관련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직종의 중요성이 중학교에까지 홍보되기 시작했다.

-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거나 아니면 GED를 소지하고 4년 동안 유급 견습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관련 비용은 업계 단체들이 주로 제공한다.

CNBC 기사

[부동산]

WSJ: Surge in Commercial-Property Foreclosures Suggests Bottom Is Near
상업용 부동산 압류 급증

- 은행과 대출 기관들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부실 상업용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업계가 혹독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이다.
- 데이터 제공업체 MSCI에 따르면 2분기에는 압류되거나 압류된 사무실 건물, 아파트 등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205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1분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2015년 이후 분기별 최고치이다.
- 높은 금리와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 지연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까지 많은 대출 기관들은 회복에 대한 기대와 압류 조치에 따른 다른 비용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떠안는 것을 꺼려 했다. 키프 브루예트 앤 우즈의 애널리스트 제이드 라흐마니는 "대출 기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Homeowners insurance premiums rose 21% last year. Climate change is partly to blame, experts say
작년 주택 보험료 21% 상승...기후 변화도 원인

- 보험회사 Policygenius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주택 보험료는 갱신 시점에 평균 21%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문가들은 대규모 기상 재해의 증가가 이러한 보험료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보험사들은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보험사들이 개별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료와 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이 보험료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CNBC 기사

CNN Business: More than half of American renters who want to buy a home fear they'll never afford one
미국 세입자 절반 이상, 주택 구매 여력 부족 우려

- CNN과 SSR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세입자의 86%가 주택 구매를 원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4%는 앞으로도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다.
-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 금리 인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 능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소유가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부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 특히, 젊은 세대가 주택 구매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5세 미만 세입자의 90%가 주택 구매를 원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는 45세 이상 세입자의 79%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CNN Business 기사

[원유]

Bloomberg: Brent Oil Falls Below $80 a Barrel for First Time Since June
브렌트유 6월 이래 첫 80불 미만으로 하락

- 브렌트유가 올해 6월 이래 처음으로 80불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감소 등의 이유 때문이다.
- 중국은 올해 6월까지 3개월 동안 5분기 만에 가장 느린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에너기구는 이를 글로벌 석유 수요 감소의 이유로 꼽았다.
- 원유 가격은 OPEC+의 공급 감축과 미 금리 인하 예상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계속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merica's Post-Covid Factory Boom Is Running Out of Steam
미국, 코로나 이후 제조업 호황 둔화 조짐

- 미국 제조업계에서는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많은 기업들이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 금리 인상, 운영비 상승,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국의 공장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 자동차, 수확기, 세탁기 등 내구성 제품 제조사 경영진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을 예상하고 있다.

- 세계 최대 농기계 제조사인 디어 앤 코는 11월 이후 2,100명의 생산직 근로자, 즉 시간제 근로자의 15%를 해고했으며, 경쟁사인 아그코는 전 세계 정규직 직원의 6%, 약 800명을 연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주 레저용 차량 제조사인 폴라리스는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기 수익이 49% 감소했다고 보고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재량적 지출을 줄이면서 오토바이, 보트, 오프로드 차량의 판매량이 모두 감소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마이클 스피첸 최고 경영자는 분석가들에게 “소매업이 예상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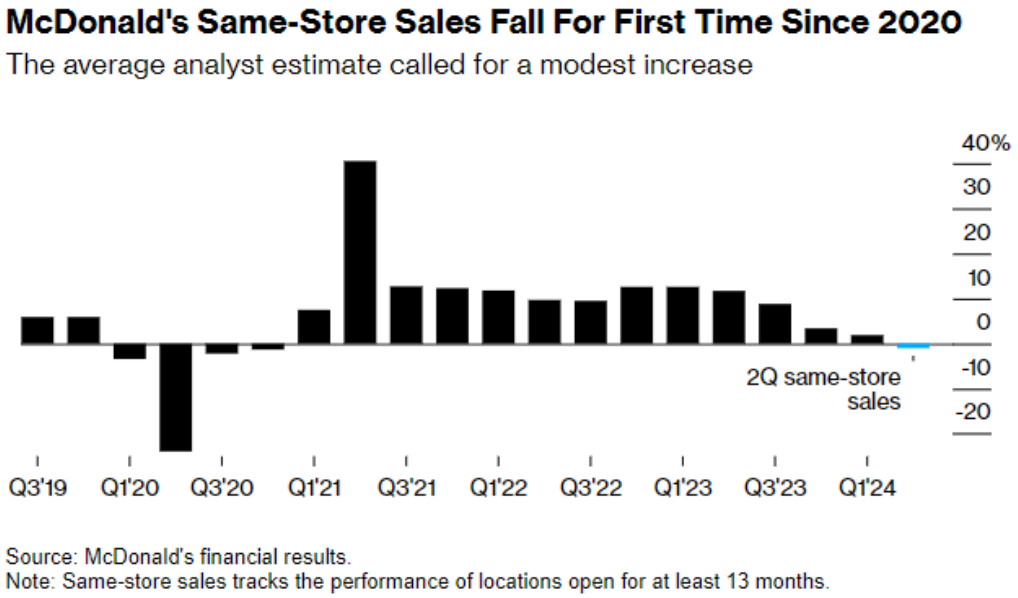
Bloomberg: McDonald’s Sales Fall in First Since 2020 as Traffic Drops
맥도날드, 2020년 이래 첫 매출 감소...고객 수 줄어

- 맥도날드는 2분기에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소폭의 성장에도 미치지 못했다.

- 1년 이상 영업 중인 맥도날드 매장의 비교 매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고객 방문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 2분기의 주당 순이익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2.97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를 밑돌았다.

- 회사는 신규 매장 오픈과 운영 마진에 대한 기존의 지침을 유지했다. 맥도날드의 경영진은 이전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수요 침체에 대해 경고해 온 바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irlines Cancel Flights to Lebanon as Mideast Tensions Escalate
항공사들, 중동 긴장 고조로 레바논행 항공편 취소

- 여러 항공사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레바논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의 스위스 인터내셔널과 유로윙스는 8월 6일까지 베이루트행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Aegean 항공은 일부 항공편을 취소하고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카타르 항공은 베이루트행 모든 항공편이 주간에 운항되도록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 레바논의 중동 항공은 국내 및 해외 항공기에 대한 보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일요일과 월요일에 일부 항공편을 재조정했다. 에어 프랑스는 7월 29일과 30일에 베이루트행 항공편을 중단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일요일 골란 고원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축구장에서 1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은 마달 샴 마을을 타격한 로켓이 헤즈볼라에 의해 발사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Silicon Valley Startup Using AI to Scour the Earth for Copper and Lithium

AI를 활용해 구리와 리튬을 찾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 스타트업 KoBold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를 탐사함으로써 광산업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신러닝 기술 덕분에 기존 탐사 방법보다 더 정교한 매장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광산업계 일부에서는 코볼트가 광물 탐사에 대한 AI의 영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혁신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광물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미국의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WSJ 기사

연준, 이번 주에 금리 동결 유력…9월 인하 시사 전망

시장 일각선 7월 인하 주장도…BofA는 12월 인하 예측
"BOE, 이번주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가능성은 반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30~31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5.25~5.50%를 유지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도 열기가 식으면서 9월 통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의미 있게 둔화하면서 올해 초 깜짝 반등에 따른 우려를 잠재웠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요인인 노동시장에서도 고용 열기가 냉각되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